

제4차 시민강좌 제1강

이주민의 땅 사천(스촨) : 성도(청두)와 중경(충칭)

이광수 (국민대)

목차

- I. 중국의 도시 읽기
- II. 이주민의 땅, 사천(四川)
- III. 성도(成都, 청두)
- IV. 중경(重庆, 충칭)
- V. 사천의 이주문화의 형성

개요

도시를 읽는다는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읽는 것이기도 하고, 문화를 읽는 것이다. 이번 중국 인문강좌는 도시읽기를 통한 중국문화 읽기이다. 첫 번째 시간에서 소개할 사천지방은 온화한 기후와 물산이 풍부하여 ‘천부지국’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옛날부터 외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고장이다. 이 중 청두는 여성스러움으로, 충칭은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도시 특징을 보여준다.

I. 중국의 도시 읽기

□ “도시는 펼쳐진 책과 같다” 이중톈(易中天) <독성기(讀城記)>

- 이중톈은 중국의 여러 곳을 돌아볼 때에는 그곳의 역사, 건축물, 풍습에 대해 알아보고 먹을거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 지역 사투리나 속담을 사람들에게 소개한다고 얘기한다.

- 중국의 도시들은 팔색조 같다. 베이징은 위풍당당한 황제의 기상이, 상하이는 점잔 피우는 상인의 총명함이, 광저우는 호의호식하는 트렌드세터의 감각이, 샤먼은 아름다운 소녀의 수줍음이, 청두는 세상 근심 없이 뛰어노는 아이의 행복이, 우한은 의리 있는 동네 형의 듄직함이, 선전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순수함이 느껴진다.

- “광저우에서 먹고, 상하이에서 입으며, 베이징에서 말한다”

- 베이징 사람은 자칭 정치인, 상하이 사람은 인간 계산기, 광저우 사람은 대식가, 샤먼 사람은 게으름뱅이, 청두 사람은 수다쟁이, 우한 사람은 욕쟁이, 선전 사람은? 아무 특색이 없다.

□ 중국 도시의 여덟 가지 유형

고도, 명읍, 성지, 변방도시, 빈성, 중진, 상업도시, 특구 - 이중텐의 분류법

1. 고도(古都): 고대 왕조의 수도였으며, 중화제국의 정치문화 중심지이자 중국민족문화의 정수(精髓)가 자리한 도시. 6대 고도: 시안, 뤼양, 카이펑, 난징, 항저우, 베이징

2. 명읍(名邑): ‘이름난 곳’라는 의미를 지닌 도시이지만, 고도의 명성에는 약간 낮지만 여전히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임. 주로 ‘역사문화도시’를 가리키고 있음. 초나라의 수도 장링, 북위의 경성 다통, 촉의 도읍지 청두. 이 외에 천하가 알아주는 독특한 풍모를 지니고 있는 도시도 명읍이라 함. 창사의 물, 쿤밍의 호수, 징더전의 도자기, 쑤저우의 원림, 양저우의 볏음밥, 사오싱의 화조, 취안저우의 낙양교, 다리의 호접천, 다통의 운강석굴, 청더의 피서산장, 구이린의 천하제일 산수 등이 속함.

3. 성지(聖地): 실상 명읍에 속하는 도시이지만 역사적, 정치적 의미로 네 곳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쑨이, 옌안, 취푸, 라싸가 있음.

현대사에서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毛澤東)을 어려움에서 구한 쑨이와 신중국 태동의 근거지가 된 옌안은 현대 중국정치에 있어서 혁명성지라 인정받음. 취푸는 공자의 고향으로 중국 민족과 중국 문화의 근간인 2000여 년 유학의 발상지이고. 라싸는 티베트장족의 ‘성자의 낙원’이라 할 수 있음. 이 중 취푸를 제외한 세 곳은 변경의 요새라 할 수 있음.

4. 변방도시(邊關) : 중앙정권 및 전통적인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진 변경도시들을 말하는데. 주류문화의 영향을 덜 받고. 자연, 지리, 자연 풍경이 아름답고, 민족 구성원이 다양한 곳으로 여기에는 우루무치, 후허하오터, 라싸 등 지명부터 이국적인 곳이 많음.

5. 빈성(濱城) : 강변도시와 해변도시로 분류. 강변도시로는 황허와 양자강을 끼고 발달한 지역인데, 완셴, 이창, 웨양, 황스, 주장, 안칭, 우후, 난통. 충칭, 우한, 난징, 상하이도 포함. 해변도시는 발해에서 남해까지 다롄, 옌타이, 칭다오, 렌윈강, 닝보, 윈저우, 샤먼, 산터우, 잔장, 베이하이, 썬야가 있음. 이 도시들은 항구로서 대외개방의 출구이자 방어역할을 하는 요새이기도 함. 따라서 유입과 유출, 방어와 공격의 기능 보유. 즉 전시에는 최전방이 되지만 평시에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임.

6. 중진(重鎮) : 지방의 주요 도시를 말하는데, 첫째, 정치문화의 중심였던 하얼빈, 창

춘, 선양, 지난, 타이위안, 푸저우, 난창과 같은 성회(省會: 지방 省의 행정 중심지)와 텐진, 충칭과 같은 직할시가 있으며, 둘째, 군사 요새였던 다통, 쑤이, 상판, 쉬저우, 우한, 난징, 화이난 등지, 셋째, ‘공업 도시’가 이에 속함. 예를 들어 석탄의 도시 푸순, 주석 도시 거주, 강철 도시 안산과 바오터우, 자동차 도시 창춘과 스옌, 석유의 도시 다칭, 위먼, 커라마이 등이 있음.

7. 상업도시(商埠) :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들로, 광저우, 닝보, 취안저우가 있음. 취안저우는 송나라 시기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와 함께 세계 3대 무역항으로 불리기도 함. 쑤저우와 포산은 남북을 이어주는 곳이자 수륙이 만나는 곳이며.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임. 다른 유형은 근대 이래 문호를 개방한 상하이와 홍콩 같은 도시. 순수하게 상업적 필요에 의해 건설되고 발전을 이룬 곳

8. 특구(特區) :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선전, 주하이, 샴투우, 샤먼. 전통적인 상업지역은 역사적 유산인데 반해 신흥 특구는 개혁개방의 산물. 모든 것이 새로운 이 도시들 중에는 특구라고 불리지 않으면서도 특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스타도시’ 존재 순더, 중산, 장먼, 둥관, 후이저우 및 포산. 공통된 특징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훌륭한 공공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 도시 현대화의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

II. 이주민의 땅, 사천(四川)

개요

면적 486,000km²으로 5.08% 점유하여 중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성이며, 인구는 8076만명(2012년 기준)으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성이지만, 인구밀도는 181명/km²로 22위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인구는 광대한 사천평원이 위치한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사천성에는 21개 지급시, 183개 현급 행정구, 5,011개 향진급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층군중자치조직으로 도시의 사구거민위원회와 농촌 촌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리와 지형

사천은 중국 서남 내륙지역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청장고원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삼협과 험산준령이 겹겹이 쌓여 있고, 북쪽으로는 파산과 진령이 가로막고, 남쪽으로는 운귀고원이 턱 막고 있는 지형으로 사방에 막혀 있는 전형적인 분지지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천고원이 형성되었다

사천은 중국의 중부에 위치해 있지만, 산과 고원, 평야가 고루 있는 관계로 기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한다. 즉 서부는 천서고원이며, 동부는 천동분지이다. 천서는 아베이, 간무, 랑산 티베트 장족 자치주를 포함하고, 청장고원에 가까운 서부지역은 대부분이 해발 3,000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고산협곡이 높게 펼쳐진 까닭에 고원산악지대는 기온이 낮고, 겨울에는 2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기간도 5개월 동안 계속된다. 6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이며,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건조한 계절이다. 건조기에는 오후 기온이 30-35도까지 이른다. 특히 중경 가까운 천동지역은 고온지대이다. 고원지대는 6시간 이상 햇볕을 내리비춰, 생물의 성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사천 자연의 풍광에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

사천분지는 중국의 4대 분지 중의 하나로서 17만km²이고, 해발 300-700미터인데, 사방이 1,000-4,000m에 이르는 산지에 둘러싸여 있다. 분지 아래에는 용천산 서쪽으로 천서평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두평원과 어메이산 평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청두평원은 6,200km²로 사천성 최대 면적의 평원이다. 용천산 동쪽지역은 분지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조건이 다양하여 천중의 방산구릉지역, 천동의 평형협곡 지역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화진산의 주봉우리는 1,704m로 분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천동 분지지역의 사면은 산악지대인데 높이가 1,000-3,000m로 겨울에는 한랭공기를 막아주는 천연 장벽이 된다. 따라서 분지 기후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봄이 일찍 오고, 여름은 뜨겁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청두 기온은 가장 높을 때도 33도 정도이다). 여름은 보편적으로 4-5개월 정도이고, 일년내내 구름, 안개가 많고, 햇볕이 적다. 따라서 구름이 많은 흐린 날이 200일 이상 된다. 겨울에도 안개가 많다.

남서쪽 산악지역은 청장고원의 동부 쪽이며 횡단산계의 중심과 가까운 협곡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94%는 산악지역이며, 남북 방향으로 산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는 협곡이 이어져 있다. 고도가 높아 3,000m 전후이며, 일부 산봉우리는 4,000m를 넘는다. 주요 산맥으로 샤오량산, 다량산, 샤오샹링, 멘핀산 등이 있고, 제일 높은 산은 스멘, 지우룽, 캉딩 세 현에 걸쳐 있는 우밍산봉으로 해발 5,793m이다. 동쪽의 다량산은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정상부분은 3500-4000m이며, 북쪽으로는 다평딩, 남쪽으로 황마오잉이다. 중부지역의 안닝하곡은 평원으로 960km²로, 사천성에서 두번째로 큰 평원지대이다.

사천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일찍부터 관광업의 자원이 풍부하다. 예로부터 ‘천하의 산수는 촉에 있다’(天下山水在于蜀)는 말이 있으며, 아미산 경치는 빼어나고, 구절곡 풍광은 기괴하며, 검문관 풍광은 험준하며, 청성산의 절경은 고즈넉하다라는 용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峨眉天下秀, 九寨天下奇, 剑门天下险, 青城天下幽) 이외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천대산天台山, 천불산天佛山, 사고양산四姑娘山, 몽정산蒙顶山, 아미산峨眉山, 백운산白云山, 봉황산凤凰山, 하연산夏衍山, 서령설산西岭雪山 등 수많은 명산들이 있다.

역사

상고사 시기

200만년전부터 사천에서 인류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25,000여년 전에는 문명이 출현하였고, 기원전 2800년부터 기원전 800년까지의 시기에 삼성퇴문명을 대표로 하는 고대문명인 ‘고촉문명’이 발전하였다. 진(秦)나라가 사천을 복속한 이후부터 중원문화에 귀속되었다.

고촉문명

고고학적 발견에 따라, 200만년전 구석기 초기에 사천에 인류활동이 시작하였다. 사천 지역에 네 군데의 구석기 문화유적지가 발견되었다. 7-8000년 전의 사천은 점차 신석기시대로 접어들었다. 신석기 유적지는 넓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 200여곳이 넘게 발견되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광한 삼성퇴 유적지, 광원 링판량 유적지, 시창 리저우 유적지 등이다. 대략 4-5000년전의 사천은 상고시대의 전설시기로 접어들었다. 대략 중원지역의 고대국가였던 하(夏), 상(商), 주(周)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고대사 전설의 내용은 상고시대 사천의 왕족과 활동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우왕이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와 두우가 두견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역사서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삼성퇴, 금사, 십이교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과 구전 전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상나라 시기까지 청두평원은 노예제 사회였다.

상주시기에 청두평원은 노예제를 근간으로 한 촉나라가 등장하였는데, 전설상의 ‘3대 촉왕’인 ‘돈종, 백관, 어와가 그것이다. 하상 교체기에 촉인 부락은 지금의 마오현 일대에서 청두 평원으로 이주하였다. ‘3대 촉왕’ 이후, 대략적으로 중원의 서주시기에 두위 왕조가 건립되었고, 수도를 베이읍(지금의 베이현)으로 정하였다. 두위 왕조는 세습군주제를 채택하였는데, 강대한 세력을 지녀 사천분지 전체를 통치하였다. 춘추 초기에 두위씨선이 치수에 공적을 쌓은 재상 씨링에 왕위를 양도하였고, 씨링은 개명 왕조를 세웠다.

전국시대에 삼국시대 시기

개명왕조는 수도를 광두(지금의 쌍류)로 정했다. 초기에는 강력한 세력을 지녔고, 기

원전 4세기 경에 개명9세가 화하족의 예약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광두에서청두로 천도하였다. '창홍화비(충신 장홍이주경왕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나 3년 지난 뒤에 푸른 옥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로 촉인의 절개와 충성을 높이 평가하는 고사이다 <http://baike.baidu.com/view/171982.htm>)' 전설이 생겨났다. 진나라 혜문왕 경원9년(기원전316년)에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석우도에서 촉나라로 쳐들어왔다.

문화

파문화지역

서주시기 파, 촉, 파, 저 출신 고대인들이 자링강, 바이룽강에서 노예제 국가인 '석은?'이 춘추시기 고대 파국의 영토였다. 파중에서는최근들어 옛 파인의 유적이 발견되고 유물이 출토되면서 파문화 지역임을 입증하고 있다. '파'자는 이를 더욱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난충시 직속 현급시인량중은 한때 파국의 수도였으나, 나중에 광웬 지역의 촉국 제후국인 '저'와 이웃하여 있어, 위협을 느낀 파국이 바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광웬은 줄곧 파국과 촉국이 서로 차지하려던 곳으로, 촉국이 먼저 '저' 제후국을 세웠으나, 저의 주요 민족구성원은 '파'족으로 파문화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파중에서 최근 세운 파인광장은 바로 짙은 현지 문화적 색채를 드러낸 것이다. 다저우시이한뤄지아베이에 파국 유적이 있는데, 다저우 또한 주요한 파문화 유적지이다. 광웬은 난충과 총칭으로 둘러싸인 곳이니 자연스럽게 파문화지역인 곳이다.

촉문화구

<화양국지>에 따르면 파촉양국은 자링강을 사이에 두고 형성하였다고 되어있다. 청두는 촉국의 도성이다. 촉국의 개명왕조는 지금의 광웬에 왕실 친척을 보내어 '저' 제후국을 세워, 화하문명지역과의 교류와 소통에 대비하였다. 촉국 개명왕조 12세는 멘양에서광웬 방향으로 '석우고도'를 세워 화하문명을 받아들였다. '오대개산' 고사는 바로 석우도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당나라 시인 이백이 <촉도난>에서 언급하였다. 야안과러산일대의 청의 강국은 촉문명의 한 줄기이며, 촉국에 병합되었다. 즈공은촉국의 소금 생산지였다. 소금은 즈공, 이핀, 네이장, 루저우 일대를 촉국의 '사가중지'이자 비옥한 자연조건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더양의 '산쌍두이'는 촉국의 중요한 문명 지역이다.

판시 문화지역

량산 이족 자치주와 판지화는 이족의 문화지역으로, 판지화의 인구는 한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족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베이장족·강족자치주와 간무장족자치주는 소수민족인 티벳 장족과 강족의 문화적 색

채를 띠고 있다.

경제

2012년 사천성의 GDP는 2조 3849.8억위안(3,885.13억달러)으로 전체 7위에 위치하며, 1인당 GDP는 4,826달러로 전국에서 23위이다.

사천의 소수민족

사천성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한족汉族 95%, 이족彝族 2.6%, 장족藏族 2.1%, 회족回族, 이족彝族, 강족羌族 등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장족의 고향인 서장과 인접한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 제2대 장족 지구’, ‘유일한 강족 거주지역’, ‘최대 이족 거주지역’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Ⅲ. 성도(成都, 청두)

성도는 여러 명칭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연꽃의 일종인 부용화가 많이 피어난다고 하여 ‘용성(蓉城)’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단으로 유명하여 ‘금성(錦官城)’으로 불린다. 그래서 약칭으로 ‘용(蓉)’을 사용한다. 사천분지 서부의 청두평원에 위치하면서 사천성의 성회(성중심지)이다. 중국의 서남지구의 물류, 교역, 과학기술, 금융, 교통, 통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고, 국가 도농종합균형발전개혁의 시범지구이기도 하다.

성도는 국가가 지정한 제1기 역사문화도시이다. 예로부터 ‘천부지국’으로 불린 성도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는 도시중의 하나이다. 사료에 의하면 기원전 316년 성도에 성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2300여년의 역사가 흘렀음을 알 수 있다. 성도 시내에 있는 금사(金沙)유적지 등 주변의 고고학적 유적지 발굴을 통해 보면, 성도의 도시발전은 3200여년전까지 들어간다. 현재 성도에 위치한 성유(成渝)경제구는 중국 서부경제권역의 가장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Ⅳ. 중경(重庆, 충칭)

개요

충칭은 4대 직할시 중의 하나로서 서부의 중심도시이다. 국가역사문화로 이름난 도시이며, 장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도시로서 현대제조업 기지이며, 서남부 종합교통망의 중추이며, 도농결합형 특대형도시이다.(중국의 도시는 특대, 초대, 거대, 대도시 등으로 구분함)

충칭시는 중국 내륙의 서남부, 장강 상류에 위치한 다중심·조합도시이다.

(<http://wenku.baidu.com/view/09485c086c85ec3a87c2c57a.html>)

총칭은 산을 배경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산청(山城)’이라 이름하였다. 겨울은 봄같이 따뜻하고, 비는 많지 않지만, 안개가 많다 하여 ‘우두(霧都)’라고 한다. 총칭 내부로 자링강측 옛 말로 위쉐이(위유라고 약칭)가 흐르고 있다. 199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총칭을 네 번째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결정하였다. 서부지역의 유일한 직할시이다.

총칭의 총인구는 도시 핵심구와 주변 외곽지역으로 나뉘는데, 시 전체 인구는 3천235만명으로, 세계 도시 인구 중 일본의 토오쿄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세 번째의 대도시 인구규모이며, 중국에서는 가장 많다.

지리 지형

총칭은 중국의 내륙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장강 상류지역과 사천분지 동쪽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동경 105도 11과 110도 11 사이, 북위 28도10과 32도 사이의 청장고원과 장강중하류 평원 사이에 있다. 동쪽으로 후베이, 후난성이 마주하며, 남쪽으로 구이저우성이, 서쪽으로는 스촨성, 북쪽으로는 산시(섬서)성이 위치해 있다. 총칭은 동서로 470km, 남북으로 450km로, 총면적은 8.24만km²로 성급 행정단위 중 26 번째이고, 한국(남한, 약9.9만평방킬로)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다. 직할시인 베이징, 톈진, 상하이를 합친 것보다 2.4배 더 넓은 엄청난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심도시구역의 면적은 647.78평방킬로(서울 면적 605.25평방킬로)로 실제 총칭 대부분지역이 농업지구이다.총칭의 지형은 평균 해발 400m이다. 총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우시현(巫溪县) 동쪽에 있는 계량산(界梁山)의 주봉우리인 인타오령(阴条岭)으로 높이가 2796.8미터이다.

인구

2007년말 총칭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는 모두 3235.32만명으로 중국내 성급 행정구역 중 20위이며, 인구밀도는 1km당 379명으로 중국내에서 12위이다. 또한 인구자연증가율은 3.76\$(2007)이고, 일인당 평균 수명은 76.05세로, 전국 평균 수명 73세보다 3세가량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슷하다.

총칭에는 55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즉 중국의 소수민족 56개 중 우즈베크족만 없다.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역시 한족으로 93.5%를 점하고, 소수민족의 총인구는 210.3만명으로 전 도시 인구의 6.5%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토가족으로 142.4만명으로 시 인구의 5%, 소수민족인구 중 72.2%를 차지하고, 묘족은 50.2만명으로 시인구의 2%, 소수민족인구 중 25.4%이다. 소수민족은 비교적 많은 지방행정조직, 즉 소수민족향진은 45개지역, 8개 민족향이 존재한다.

총칭은 현재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다섯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의

신도수를 합하면 120여만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일부분만 차지한다.

관광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총칭은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즉 산, 강, 숲, 폭포, 협곡, 동굴 등이 골고루 분포되고 서로 일체가 되어 화려한 자연경관을 만들고 있다. 또한 파유문화, 민족문화, 이민移民문화, 삼협三峽문화, 배도陪都문화, 도시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문화적 자원도 깊이 어우러져 있다. 총칭시의 전체적으로 자연, 문화경관이 300여곳에 이르고, 이 중 하나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었다. 또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13곳, 국가중점풍경명승지가 6곳에 이른다. 총칭은 또한 사천 요리로 대표되는 곳이기도 하다. 총칭에서 기원한 ‘훙구어(火鍋)’는 더욱 유명하며, 웅장하고 광활한 장강삼협과形形色색의 화려한 총칭의 야경, 수려하기로 사람을 이끄는 것으로 유명한 푸룽장, 맵고 자극적인 총칭 훙구어 모두 총칭의 주요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장강삼협

장강삼협은중국 10대 풍경명승지구의 하나이며, 40곳의 유명 관광경관 중의 첫 번째이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朝辞白帝彩云间,千里江陵一日还”라는 시구로 총칭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장강삼협의 서쪽은 총칭시의 평제현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후베이이창에 이르는 남진관(南津关)으로취탕샤, 우샤, 시링샤 세 협곡을 이르는 명칭이며, 장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는 절경이다. 1994년 첫 삽을 뜬 삼협댐 건설공사는 15년만인 2009년 완공된 세계최대 규모의 댐으로 발전량이 에 이르고, 삼협댐으로 인해 129개 향진에 걸쳐 길이 660km, 평균 너비 1.1km, 총면적 632제곱킬로, 총저수량 393억톤에 달하는 초대형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 최대 인공호수인 소양호 저수량의 13배가 넘는다. 엄청난 대공사로 인해 수몰지구의 주민 113만명이 가까이는 후베이, 멀리는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전역으로 이주했다.삼협댐의 완공 이후 관광명소가 되었다. 삼협댐 근처의 평두귀성, 충현 석보채, 원양장비묘, 취탕협, 우협, 시링협, 다닝허소삼협 등이 있다.

장강삼협은 땅은 비옥하고 사람은 걸출하다는 말이 있다. 이곳은 중국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의 하나이다. 다시(大溪)문화가 곧 이곳에서 발원하였다. 애국시인으로 유명한 굴원, 4대 미인 중의 하나인 왕소군이 유명하며, 또한 문인인 이백, 백거이, 유우석, 범성대, 구양수, 소식, 육유 등의 족적이 남아있어 천고의 시문이 남아있다. 대협?곡은 삼국시대 전쟁터이고, 수많은 영웅호걸들의 이야기가 얹혀있는 곳이다. 그밖에 백제성, 황릉묘, 남진관 등등 산수가 아름답고 물도 많은 천혜의 보고이기도 하다.

역사

총칭은 역사문화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다. 고대에는 강주(江州)라고불리웠고, 그 이후에는 파군(巴郡), 초주(楚州), 유주(渝州), 공주(恭州) 등의 지명을 사용했다. 남북조

시대에 파군에서 초주로 바꾸었고, 서기 581년 수문제가 유주로 개칭한 까닭에, 현재 총칭의 약칭은 ‘유(渝)’이다. 1189년 송나라 광종은왕위계승순위에서 밀려 먼저 공왕恭王으로 책봉되어 봉토인 공주로 가다가, 선임 왕이 갑작스레 죽자 황급히 도성으로 돌아와 제위에 오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에 두 가지 경사가 찾아왔다는 의미로 双重喜庆이라는 말이 생겨 나오게 되었는데, 광종이 공주를 중경부(重庆府)로 이름을 내려 승격시키면서 중경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 800여년 전의 일이다.

한편 원나라 말기에 명옥진(明玉珍, 1329~1366)은 명교(明教)를 숭상하여 성씨도 ‘민(旻)’에서 ‘명(明)’으로 개명하였는데, 후광행성(湖广行省) 수주(隨州)(지금의 후베이성 쉘이저우시)사람이다. 몽고족이 통치하던 원나라 지정(至正)7년(1357)년 명옥진은 명을 받아 서쪽 정벌을 시작하여, 4월에 총칭을 점령하였고 스촨에 잔류해 있던 원군을 소탕한 이후 스촨 대부분 지역을 관할하에 두었다. 지정21년(1361) 7월 명옥진은 총칭에서 용촉왕(隴蜀王)으로 칭하며, ‘송’을 국호로 삼았다. 지정23년(1363) 1월에 총칭에서 황제로 칭하고 국호를 ‘하(夏)’로 하고 연호를 ‘천통天統’으로 하고 총칭을 수도로 하여 ‘대하(大夏)’정권을 세웠으나, 명옥진이 죽고난 후, 1371년 명나라 주원장에 의해 붕괴되었다. 한편 명옥진의 아들 명승이 고려로 유배되어 왔다가 공민왕에 의해 봉토와 집을 하사받아 거주하게 되면서, 한국의 명옥진은 명씨의 명승은 승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명옥진 족보 관련 사항: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ljy0309&logNo=70083030017>)

1937년 일본의 침략으로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장제스 국민당정부는 11월 20일 <국민정부이주총칭선언>을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총칭에서 정식업무를 시작했다. 총칭이 중화민국의 임시 수도가 된 것이다. 1940년 9월6일 국민정부는 정식으로 총칭을 중화민국의 보조수도陪都로 규정하였다. 총칭은 당시 전국의 항일전쟁을 지휘하는 지도부가 있었으며, 후방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 나라가 총칭을 수도로 삼았다. 각각 파국(巴国), 대하국(大夏国), 중화민국(中华民国)이 그것이다. 이런 관계로 사람들은 총칭을 세 수도의 땅‘三都之地’라고 불린다. 1891년 총칭은 대외적으로 가장 빨리 개항한 내륙 통상 항구이다. 1929년 정식으로 시승격을 하였으며, 초대 시장은 판원화(潘文华)이다. 판원화는 시장 재직 당시 사천군의 교도사령관도 겸직하고 있었다. 그는 군인 출신이지만, 애국애민의 자세와 교육을 중시하여, 시장 시절에 총칭의 여러 학교 건립과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였다. (<http://baike.baidu.com/view/780825.htm>)

신중국 건립 초기 총칭은 중공중앙서남국과 서남군정위원회가 소재한 곳으로, 중국 남서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중앙의 직할시였다. 1952년 8월 사천성이 회복되었지만, 총칭은 여전히 직할시로 남았으며, 1954년 6월 서남대구가 취소된 이후 사천성의 직할시로 편입되었다.

1983년 전국의 경제체제종합개혁의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계획단열시가 되었고, 성급경제관리권한을 부여받았다. 1992년 연강개방도시로 선정되었다. 1996년 9월 중앙은 총칭이 완현시(현재의 완저우구万州区), 페이링시(涪陵市), 친장지구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1997년 3월 14일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총칭을 중앙직할시로 회복 승격시켰으며, 1997년 6월 18일에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이로써 총칭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다음으로 네번째 중앙직할시가 되었고, 서부지역의 유일한 직할시로서 총칭 건설과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기후

총칭의 기후는 따뜻한 아열대 계절풍 습윤기후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연평균기온이 18도 전후이며, 겨울 최저기온이 평균 6~8도로 그다지 춥지 않으며, 여름에는 비교적 더운데, 7~8월에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한다. 최고 기온은 41.9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며, 최저기온은 17이다. 일조량은 1000~1200시간이고, 겨울에 따듯하며 여름에 뜨겁고, 서리, 비 등이 충분하여, 매년 강우량은 1000~1400mm이다. 총칭은 안개가 많은 도시로 지리적 환경의 원인으로 비롯된 것이다. 연평균 안개낀 날은 104일정도이며, 세계적으로 안개로 유명한 런던의 평균 안개낀 날 94일보다 많고, 섬나라 일본의 연평균 55일보다 두 배나 더 많다. 때문에 총칭은 명실상부한 ‘안개도시霧都’라고 불린다. 총칭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비산현璧山县의 경우에는 운무가 1년 중 204일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난 안개 도시에 속한다.

사천분지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총칭의 북쪽에는 대파산大巴山, 동쪽에 무산巫山, 무릉산武陵山, 남쪽에 대로산大娄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형은 산과 구릉 위주이고, 밭도 대부분 경사진 형태로 되어 있다. 때문에 총칭을 ‘산성山城’으로 부르기도 한다.

총칭을 흐르는 하천은 규모가 있는 것으로 하면, 장강长江, 가릉강嘉陵江, 오강乌江, 부강涪江, 기강綦江, 대녕하大宁河 등이 있다. 장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총칭을 관통하여 흐르는데, 총칭에서만 665km이다. 실제 장강의 길이는 3219km이다. 무산에는 유명한 장강삼협长江三峡이 있는데, 구당협瞿塘峡, 무협巫峡, 서릉협西陵峡(후베이성 경내에 위치)이다. 한편 총칭 도시구역에는 장강과 가릉강이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경제

총칭은 중국의 6대 노공업기지 중의 하나이다. 즉 동베이, 화베이, 화동, 중난, 시난, 시베이 지역 중 서남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업기지로서 내륙후방기지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야금, 기계, 화공, 연료동력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총칭공업구를 기점으로 서부와 남부로 확대해 가고, 스촨성청두는 기계 공업을 중심으로 경중공업을 결합한 공업구가 형성되고, 즈공, 네이장, 루저우 등은 스촨 중부지역은 천연가스, 화공, 염색화공, 제당 공업구가, 두코우 중심의 강철공업 구, 귀양의 기계, 화공, 유색금속 공업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zhidao.baidu.com/question/73664185.html>)

총칭은 장강 상류지구의 상업, 무역, 금융의 중심지역으로서, 유명 공산업기업들이 총칭으로 몰려들고 있다. 2009년도 국가 브랜드 선정 결과, 총칭의 ‘리판力帆’, ‘창안长安’, ‘타이지太极’가 선정되었고, 이외에도 총칭에는 23개의 ‘중국유명브랜드中国驰名商标’가 있으며, 중국 서부에서 두 번째로 유명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창안자동차는 중국 4대 자동차 제조기업으로, 중국 최대 소형차 제조기업으로 창안자동차, 창안승용차, 창안포드, 창안마쓰다, 창안볼보, 창안스즈끼 등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과 합작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리판그룹은 중국의 주요 이륜차 및 승용차 생산기업으로 총칭은 원밍산이다. 타이지그룹은 중국 최대 중약 생산기업으로 가장 많은 판매대리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형 제약 및 유통기업이다. 타이지그룹, 시난약업, 동오각 세 주식회사로 구성되어있고, 취메이, 지지탕장, 후탕정치에, 부선이소우쟝낭, 타이루어, 판자쟝낭 등 유명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 총칭상사그룹은 서부최대 유통기업으로, 총바이, 신세기백화점, 상사전기, 상사자동차판매, 상사화공, 상사중천호텔, 상사핀니우호텔 등 유명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총칭백화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회사이다. 총칭강철그룹은 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강철 연합 기업으로, 전신은 한양철공장이다. 현재 전국 500대 기업 중의 하나로, 총칭제철은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총자그룹과룡신그룹은 총칭의 3대 민영 이륜차 기업 중의 하나이며, 룡신그룹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한다. 룡후그룹은 총칭 최대 부동산기업으로 전국 10대 부동산개발기업 중의 하나이며, 총칭, 청두, 베이징, 시안, 상하이 등지에 자회사를 두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진커그룹과화위그룹은 총칭의 두번째, 세번째 부동산기업이다.

문화

파유문화는 장강 상류에서 가장 민족문화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파유문화는 파문화에서 출발하여 파족과 파국의 역사가 진행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문화이기도 하다. 파인은 큰 산과 큰 강을 자연환경으로 하여 생활해 왔기 때문에 대자연의 영향과 험악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완강하고 끈질기며, 민첩하고 용맹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때문에 파인은 용맹하고 싸움에 능하다는 평을 받았다. 총칭의 산과 강은 총칭 남성의 불같고 끈질기며 호탕한 열정을 지니게 하였으며, 여성은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호방하고 발랄한 마음씨를 갖게끔 하였다. 완전한 파문화는 사천성의 광원 广元, 난총南充, 빠중巴中, 다저우达州, 광안广安 5개 시도 해당하며, 대체로 자링강의 서쪽 지역이다. 또한 산시 남부, 후베이 서부, 후난 서북부와 구이저우 북부도 파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천극(川劇)은 파유문화의 대표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써 중국 희곡문화의 중요 구성품 중의 하나이다. 천극의 역사는 유구하며, 적지 않은 전통극과 풍부한 악곡, 정교한 연출예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스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등 서남부 지역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민족민간예술이기도 하다. 일찍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쿤창昆腔, 가오창高腔, 후친창胡琴腔(피황皮黃), 탄시와 사천민간의 덩극등 다섯 종류의성창예술이, 개별적으로 사천 각지에서 공연되었다. 청 건륭연간(1736-1795)에는 성창예술이 빈번하게 무대 위에 올려졌으며, 점차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었고, 청조 말기에는 ‘천희川戏’으로 통칭되었다가, 이후 ‘천극川劇’으로 바뀌었다. 천극 중의 ‘변안變臉’, ‘분화噴火’, ‘수축水袖’ 등의 연기는 독자적으로 연출되기도 하고, 다른 극형식과 함께 연출되어 색다른 묘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천극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을 노래하는 걸 즐기기도 한다. 천극 중의 유명 작품으로는 ‘백사전白蛇傳’, ‘금산사金山寺’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충칭에서 무산巫山까지는 천리에 걸쳐 강이 흐르고 있으며, 물길은 길고 좁기도 하며, 굽어져 있기도 하며, 기암괴석이 밖으로 보이기도, 속으로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빠른 급류가, 때로는 천천히 흐르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예전에는 상류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밀거나 동앗줄을 이용해 잡아 당기면서 항해를 하였고, 이럴 때는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동원되었다. 이때 선두에 선 사공은구령소리호수를 이용하여 통일된 지휘를 하였다. 따라서 사천의 강을 따라, 사공들에 의한 수많은 뱃노래川江号子가 만들어졌다.

고대부터 파유(巴渝)사람은 ‘바이룡먼전摆龙门阵’(수다,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여, 민간구전문학이 일반 민중에게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충칭의 주요 민간문학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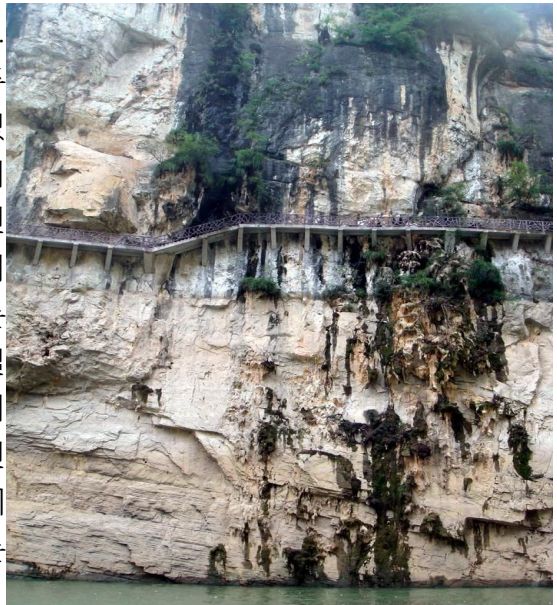
V. 사천의 이주문화의 형성

파촉(巴蜀: 사천의 옛 명칭)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민족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지닌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고촉은 중국의 서부에서 장강 상류의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중국 문명의 중요한 발원지이기도 하다.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모델 그리고 문명 형태를 갖고 있다.

사천분지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른바 사방이 꼭 막힌 나라(사색지국: 四塞之國)로 고대부터 유명한 곳이다. 고대에는 지금과 달리 도로나 우마차로 이용하거나, 험한 곳은 우마도 이용할 수 없었기에 당연히 교통이 매우 힘들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당나라의 대시인 이백은 촉나라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다(“蜀道之難難於上青天”)라고까지 탄식하였다. 사천의 폐쇄

형 지형은 한편으로는 농업문명을 특징으로 하는 파촉문화가 외부의 간섭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색채를 띠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파촉의 옛 원주민들이 외부로의 통로를 개척하도록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도록 자극하였다. 이렇듯 사천이 지닌 자연 환경과 고유 문화의 상호 결합은 파촉문화가 폐쇄 속의 개방, 개방 속의 폐쇄라는 역사적 성격을 갖도록 영향을 미쳤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방’과 ‘포용’은 사천지역의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이 되었다.

파촉문화가 중국문화의 중심인 중원(中原)과 진(秦)과 교류하는데 있어서 최대 난관은 사천 북부에 위치한 높은 산맥 ‘친링秦嶺’이었다. 파촉 선민은 ‘잔도’를 통해 분지지형의 봉쇄를 주도적으로 열어제끼고, 좁다란 폐쇄성을 극복하였다. 고촉시대 촉왕은 진나라 혜문왕이 친선의 의미로 보낸 황금소와 다섯 미녀를 받기 위해, 수천의 부하들을 보내서 결국에는 새로 길을 만들어 받았다는 신화 속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 이는 상고시대에도 산에 길을 내어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잔도는 파촉인의 발명품이다. 잔도의 발명으로 인해 파촉이 사방이 꽉 막힌 곳이 아닌, 잔도 천리길 통하지 않은 곳이 없네(棧道千里無所不通)라는 말이 나왔다. 사천문화는 이를 통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산을 만나면 반드시 길을 만들고, 강을 만나면 반드시 다리를 놓는다. 고촉선민은 폐쇄형 지형을 타파하기 위하여 잔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좁은 다리(착교: 窄橋)를 만들었다. 착교는 처음에는 노끈을 꼬아서 만든 다리였고, 점차 다양한 종류의 다리가 세워졌다. 현재까지 볼 수 있는 장족 거주 지역의 동아줄을 엮어서 만든 등교(藤橋), 미엔산(岷山)의 대나무 다리(竹索橋), 윈난성 서북쪽의 대나무 껍질을 이어 만든 다리(篾橋), 두장옌에 있는 주푸차오(珠浦橋), 고대시기의 판지화에 있던 철사로 만든 다리 등 모두가 파촉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한 개방적 성향을 드러낸 사례이다.

멀리 3000여년 전, 파촉지역은 운남, 귀주와 양광(지금의 광둥, 광서)지방을 통하여 버마, 인도차이나 그리고 연해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개발하였다. 광한의 삼성퇴와 성도의 금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조개, 상아 그리고 무현과 중경의 도산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은 인도양 북부와 남해 바닷가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고촉국 사람들이 남방세계와 교통로가 개설되었고 일찍부터 교류를 통해 가져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무제때 장건이 서역을 발견하면서 공죽장(대나무 지팡이)와 촉포(촉나라 옷감)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고대부터 파촉지역과 인도와 중동, 서아시아까지

교류의 통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길이 바로 남방 비단길이다.

파촉문화는 강력한 확산성을 갖고 있다. 중원 문화, 초(楚)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고, 운남과 귀주와 사천 서남쪽에 위치한 남중국과도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사천문화는 대외적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이르렀다. 금속기의 출토나 분묘 매장 방식 등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파촉문화의 확산 특징은 바로 이민과 연관 있다는 것이다.

선진시기부터 파촉지역은 외부로부터의 이민을 허용하였다. 이민은 주로 외지에서 사천으로 유입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사천인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소수였다. 진한 시기 파촉으로의 이민은 다원문화의 융합을 가져왔다, 촉한시기 이민의 특징은 상층에서는 징저우(荊州)지역에 거주한 사대부계층이 집단이주를 함으로써 파촉문화와의 융합을 가져왔고, 하층에서는 소수민족이 대량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하고 민족융합과 교류를 촉진시켰다고 한다. 당·송대에는 주로 문인들이 촉으로 유입되었고, 객가인들도 들어왔다. 청 초기 건륭제 시기에는 호광(호남·호북, 광둥·광서)지역에서 이주해 왔는데,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는 문화의 교류와 접촉을 가져와 풍속이 뒤섞이는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여, 파촉문화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높여 주었다.

선진시기에서 위진남북조시기까지 중남부지구의 구리, 주석, 납을 연료로 사용하여 삼성퇴의 청동기 문명의 물질적 기초를 세웠다. 서남부의 여러 민족의 밀접한 접촉은 파촉이 고대문명의 중심이 되게끔 하였고, 깊은 문화적 토양을 구축하였다. 파촉과 초楚는 강을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파촉풍속은 일찌기 초문화와의 교류가 빈번했고, 이른바 파산촉수巴山楚水는 역사적으로 파촉문화와 초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일컫는 생동한 비유이자 상징이다.

한당 이후 문화교류는 더욱 인물의 쌍방향 교류로 구현되었다. 명대 학자 양신(楊慎)은 "예로부터 촉의 사대부는 다수가 타향에서 들어 왔다"라고 했으며, 청대 학자 조희(趙熙)는 "옛날부터 시인은 촉으로 많이 이주하였다"라고 했다. 파촉문화연구회 제31기 문장에는 리우샤허(流沙河), 웨밍룬(魏明倫) 등 현대 중국문화에 정통한 학자들이 사천과 사천인에 대해 묘사를 한 내용이 있다. 시인 리우샤허는 사천성과 다른 성의 최대 차이는 독립성이 강하다는데 있다고 하였다. 즉 지리, 역사, 문화, 민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사천인은 두 부류의 집단이다. 사천인은 고생을 잘 견디고 근면하다고 하지만 이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고, 사천인이 한적함과 장난치기를 좋아한다는 데 이는 도시사람들이다. 사천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잡탕(꼬우뚜이: 勾兌) 또는 집안싸움하는(위리도우窩裡鬥)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결점은 어느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천문화는 이민문화이다. 사천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지만 매우 기품이 있다. 사천농민은 다수가 시를 외우는데 이 또한 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이는 청대 말기 사천의 향신들이 학교교육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며, 항일전쟁시기 외부 학교가 대량으로 사천에 들어온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극작가 웨이밍룬은 사천문화는 아주 큰 포용성을 지니고 있어, 이른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海綿)정신'적 특징을 지닌 '잡종문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청두 사람의 여유와 한적함은 청대의 만주족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천성 사회과학원 역사학 연구원인 탄지허(譚繼和)는 삼성퇴와 사마상여 전설에도 사천인의 개방적 태도와 낭만적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하였다. 사천인은 움직이기 좋아하여, 외부로 발전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엄격하게 따지지 않으며, 오래 끌기를 싫어하는데, 모두가 이러한 사고방식의 특징이라고 한다. 사천에서는 문화적 유명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또한 사천인의 중원인의 사유방식에 대한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축인(축나라 사람, 사천인)은 중원도덕은 좋아하지 않으나, 학문을 좋아하고 미신을 멀리하며, 글자를 중히 여기고 권세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모두가 금문경학의 전통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천인의 사고방식을 잘 반영한 표현으로 '외바퀴손수레'(지공처, 雞公車) 문화이다. 바퀴가 하나뿐이라 오로지 한 사람의 힘이 절대적인데, 여전히 농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대 문명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사천사람은 옛 것을 고집하며, 우직하게 사고한다고 한다.



사천대 역사학과 린상(林尙)교수는 사천문화는 포용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천은 바다이고, 저수지이고 원자로라고 표현하였다. 즉 외부 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는 생화학변화,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천의 독자적인 전통과 합체되어 확산되는데, 이것이 곧 사천의 술, 사천요리, 사천의 연극이 된다. 사천사회과학원 연구원 리밍첸(李明泉)은 사천인은 천혜의 자원이 갖춰진 환경에서 생활해 온 덕택에 기본적인 생존욕구만 충족되면 만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얻어지는 것 즉 실리를 존중한다고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사천인의 성격은 모순되는 것도 갖고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열과 모험심은 강하여 감히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면서, 앞서나가는 진취성은 있지만, 이를 꾸준히 하는 연속성이나 꾸준함이 덜하다고 했다. 때문에 사천사람은 개별적으로는 앞서지만 집단적으로는 뒤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